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 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2,780천 km ²	G D P	6,199억 달러 (2017년)
인구	44.1 백만 명 (2017년)	1 인 당 G D P	14,062달러 (201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rgentinian peso (Ps)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8.6 (2017년)

- 아르헨티나는 남미 남부 및 남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브라질, 우루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12배 수준이며, 인구는 2017년 기준 44.1백만 명임.
-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팜파스 대평원과 세일가스, 세일오일, 광물자원, 수산자원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기후 및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5년 12월 출범한 마크리(Macri) 정부는 친시장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중이며, 2017년 10월 중간선거 결과 여당이 승리하여 동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임.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마크리 정부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경제블록을 통한 역내 협력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마크리 정부는 경제성장 및 교역확대를 위한 개방 정책 추진을 통해 EU 및 주변 교역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올해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해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 분	단위: %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2.5	2.6	-2.2	2.5	2.5
재정수지 / GDP	-4.3	-5.9	-5.8	-6.6	-5.1
소비자물가상승률	38.1	26.5	40.3	26.9	17.8

자료: IMF, EIU.

□ 2018년 플러스 성장세 지속 전망

- 아르헨티나 경제는 인접국인 브라질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바, 2017년에는 농업·건축·제조·소매업 등의 호조, 브라질 경제의 플러스 경제 성장 전환 등의 영향으로 2.5%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2016년 기준 아르헨티나 수출의 16%, 수입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브라질의 경제회복이 매우 중요함.
 - 브라질은 2015년 및 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극심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2017년에는 플러스 성장(0.7%)을 시현하였고, IMF는 2018년에도 브라질 경제가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마크리 정부의 개혁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시장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8년 또한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8년에는 과거 포퓰리즘식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개방경제·친시장주의적 정책기조로 선회하여 아르헨티나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 마크리 정부의 긴축재정 조치로 인한 2016년의 과도기적 침체를 벗어나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

□ 개혁정책 추진을 통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 도모

- 마크리 정부는 2017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보조금 대폭 축소 등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감축 노력을 해왔음.
- 다만, 2016년 디폴드 졸업이후 증가하는 공공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전년(-5.8%)대비 증가한 -6.6%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2018년에는 다소 완화된 -5%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마크리 정부는 화폐발행 등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조치 없이 재정개혁 정책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완화할 계획임.
 - 2017년 공공부채 비율이 GDP 대비 52.8% 수준으로 높긴 하지만, 아르헨티나 시장에 대한 투자요인 증가 등에 기인하여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인플레이션 지속되나, 상승률은 둔화 예상

- 전임 페르난데스(Fernandez) 정부 시절, 포퓰리즘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화폐발행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함.
-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및 유가 상승 등 대외요인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현 마크리 정부의 에너지 및 교통 부문 등 보조금 삭감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기인하여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26.9%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고물가 지속이 전망되나, 상승률은 10%대 후반 수준으로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원자재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아르헨티나는 원자재(농산물, 원유·천연가스 등)가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기후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원자재가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은 수출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기업경영환경 취약 및 인프라 미비

- 아르헨티나의 2018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는 190개국 중 117위에 불과하는 등 기업경영환경이 취약한 수준임.
- 또한 아르헨티나는 도로, 전력 등 주요 인프라가 미비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인프라 부문에서 아르헨티나는 137개국 중 81위에 불과하며, 세부 항목별 순위는 도로 96위, 전력공급 113위 등임.

나. 성장 잠재력

□ 부존자원 풍부

-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남미 2위의 국토면적(한반도의 12배)을 가진 국가로 전 국토의 60%가 농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대평원이며, 셰일가스(매장량 세계 2위), 셰일오일(매장량 세계 4위), 광물자원, 수산자원 등 부존자원이 풍부함.
- 인구의 약 10%가 농목축업에 종사하고 있고, 주요 수출품목은 1차산품 위주이며, 옥수수과 대두 및 대두 조제품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함.
- 또한 금, 은, 동, 리튬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자본 부족 등으로 전체 국토의 75% 지역이 미개발된 상태로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비교적 양호한 인적 자원 보유

- 보편적 의무교육을 통해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대다수가 유럽계 백인으로 국민들의 평균 교육연수가 높아 문맹률도 선진국 수준인 1.9%로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중등교육 등록률은 106.8%로 세계 27위, 고등교육등록률은 82.9%로 세계 14위 수준임.

다. 정책성과

□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추진을 통한 주요 경제지표 개선

- 마크리 정부는 경제왜곡 시정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IMF도 마크리 정부의 이러한 개혁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 환율 단일화 실시, 보조금 삭감, 외환규제 폐지, 물가안정 중심의 통화정책 시행 등
-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물가 급등,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2016년 물가상승률 41%, 경제성장률 -2.2%를 시현하였으나,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 민간소비 개선 및 투자 회복 등으로 인해 2017년에는 물가상승률은 26.9%로 하락하고, 2.5%의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전환됨.
- 다만, 낙후된 인프라 수준, 여전히 높은 공공지출, GDP의 6%를 상회하는 재정적자 및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등은 경제 성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3대(세금·노동·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도모

- 마크리 정부는 '17.10월의 의회 중간선거 승리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 는바, 향후 적극적으로 3대(세금·노동·연금)개혁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는 노동 개혁 등에 대한 성과는 야당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 2017년말 법인세를 35%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등 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됨. (2018, 2019년 : 30%, 2020년 이후 25%)

- 금번 세금 개혁안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약 30억달러(GDP의 0.5%)를 절감하는 등 '국가 재정 안정 및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o 2017년 12월, 의회는 연금지급방식을 임금상승 대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기마다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연금개혁안을 가결하였는바, 이를 통해 2018년 약 28억달러(GDP의 0.4%)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야당 및 노조단체들은 은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각종 복지가 중단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함
- o 마크리 정부는 투자 유치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성 노조, 경직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바, 개혁안(총 140 항목)은 의무해고 및 연장근로수당의 감축, 국가 고용보험 마련을 통한 노동 유연성 증가를 핵심 내용으로 함.

□ 국제시장의 신뢰 회복

- o 아르헨티나는 2016년 2월 디폴트 상황 종료 이후, 2016년 4월 165억 달러 규모의 채권발행에 이어, 2017년 6월 100년 만기 국채 25억 달러 발행에 성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
- o 마크리 정부는 2006년 이후 10년 만에 IMF와 연례협의를 재개하였으며, 2016년 11월 정부 통계에 대한 IMF의 신뢰를 회복함.
 -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및 왜곡된 경제정책을 고수한 과거 정부가 IMF와의 연례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2006년 이후 IMF 연례협약이 중단됨.
 - 마크리 정부는 통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계시스템 개선, 통계청 조직개혁에 광범위한 자율권 부여, 통계조작 연루자 처벌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고, IMF는 아르헨티나의 통계가 국제수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상 수 지	-9,179	-17,622	-14,693	-28,326	-29,696
경 상 수 지 / GDP	-1.5	-2.7	-2.7	-3.6	-3.7
상 품 수 지	5,542	-785	4,426	-5,000	-6,689
수 출	68,441	56,809	57,930	58,405	61,461
수 입	62,899	57,594	53,505	63,405	68,150
외 환 보 유 액	29,017	23,417	36,323	53,031	55,577
총 외 채 잔 액	161,010	178,933	196,684	225,100	252,900
총 외 채 잔 액 / GDP	28.6	28.4	36.2	36.2	38.8
D . S . R .	18.6	26.0	32.8	28.4	31.0

자료: IMF, EIU, OECD.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아르헨티나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됨.
- 최근 수년간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 중반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출품인 대두 등 농작물 국제가격이 2017년 이후 하락 추세인 점은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경기회복과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확대 전망

- 2016년 외환보유액은 미국 주요 은행들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5% 증가한 36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달러화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53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마크리 정부의 친시장 경제정책 추진으로 인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외환보유액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2016년에는 4.9개월 수준, 2017년에는 5.4개월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 증가 추세 지속되나,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전망

- 아르헨티나는 재정·경상수지 적자 보전과 인프라 개발 재원 마련 및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을 받아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2018년에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등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 부담이 과중한 수준은 아님.
 - 마크리 정부는 2018년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며, 이중 약 40%정도는 외화 채권으로 발행될 예정임.
- 2017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외채증가에 따라 D.S.R.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 운영중이나, 정치불안 가능성 상존

- 2015년 11월 실시된 대선에서 야권 연합후보인 공화당(PRO)의 마크리 후보가 당선되면서 12년 만에 우파 정권이 탄생함.
- 마크리 정부는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시장 친화적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의회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여 마크리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여전히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 원활한 정책 추진이 불가능 하는 등 정치불안 가능성이 상존함.
 - 2017년 10월 중간선거 결과 집권여당이 승리하였으나, 여전히 야당이 의회의 다수(상원 65%, 하원 58%)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등의 추진 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함.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취약한 치안, 높은 실업률 등 사회 불안 요소 상존

- 아르헨티나는 2001년 경제위기 이후 치안상태가 악화되어 납치, 강도, 날치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정 부패가 만연함.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지수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지표에서 137개국 중 113위를 기록하고 있음.
- 세부 부문별로는 범죄 및 폭력 관련 비용 114위, 조직범죄 105위, 비정기적 지급 및 뇌물 98위, 기업의 윤리적 행동 130위임.
- 2017년 실업률은 8.1% 수준으로 전년 8.5% 대비 하락하여 실업문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2016년 9월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3년만에 처음으로 빈곤율이 32.2%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사회불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물가급등과 보조금 삭감 등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추진을 지지하여 왔는데, '17.10월 의회 중간선거에서도 강력한 구조조정 및 친시장 개혁을 추진해 온 집권 여당 연합 '캄비에모스'가 승리하였음.

3. 국제 관계

□ 국제 관계 신뢰 회복 및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 수행

- 2018년은 아르헨티나에게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2018년 11월 개최예정인 G20 의장국이 된 아르헨티나는 과거 정부 12년간의 국제관계 고립을 벗어나 국제무대 복귀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임.
- G20 일환으로 연내 50차례 이상의 각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아르헨티나는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적 긴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회원국들도 아르헨티나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으로 기대됨.

□ EU 및 주변국들과 관계 회복 적극 추진

- 마크리 정부는 취임 이후 친시장주의 및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EU와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 2018년 1월 다보스포럼 중에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러시아 및 프랑스를 방문하여 자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부각시키려 노력함.
- 또한 마크리 대통령은 2018년 1월 다보스 경제포럼에 참가하였으며, 올해 G20에서 포용적 성장과 글로벌 식품안전 공조 등을 논할 계획이라고 밝힘. 아르헨티나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일의 미래, 개발을 위한 인프라,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식량안보’ 라는 3대 아젠다를 선정하였음.

□ 중국과는 긴밀한 협력관계 지속

-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중인 중국은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며, 아르헨티나도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자국에 유익한 면이 많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16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제2대 수출국(8.0%)이자 수입국(19.0%)으로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임.
- 중국은 2016년 9월 항조우 G20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초대할 바 있으며, 2017년 5월에는 마크리 대통령이 중국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 필요

-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무역확대와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역내 경제공동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인해 환율 불안정 및 원자재 가격 하락 가능성 등 아르헨티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역내협력발전에 만전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 동 협정에 의거 남미공동시장 차원에서 공동으로 FTA를 추진함.
 - 남미공동시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 경제블록으로서, 중남미 인구의 70%인 2억 6000만명 및 GDP의 76%(2조 7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임.
- 남미공동시장 가입협정 후속조치 불이행 및 비민주적 통치관행으로 인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자격을 정지('16.12월)당한 베네수엘라 등 일부 남미 국가와는 마찰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한편, 아르헨티나는 2016년 6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경쟁관계에 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옵저버로 가입하여 이념 대립보다는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개선 추세

- 아르헨티나는 2016년 2월 헤지펀드와 채무조정 합의로 기술적 디폴트 상태가 해소되는 등 마크리 정부 출범 이후 외채상환태도가 개선되고 있음.
 - 마크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10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신용등급 상향을 주장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2001년 1,000억 달러의 대규모 디폴트 선언, 2014년 기술적 디폴트 발생, 파리클럽과 9차례 채무재조정 경험 등 과거 취약했던 외채상환태도의 개선을 위해 향후에도 성실한 채무상환 이행 등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2. 국제시장평가

□ Moody's 신용등급 상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는 2017년 11월에 마크리 정부에 의한 경제분야에서의 개혁 및 지속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B3'에서 'B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
- 한편, OECD는 2016년 10월 14년만에 기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후, 2017년 10월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6등급으로 유지함.

□ 해외차입능력 향상

- 국제신인도 및 외채상환태도 개선 등에 힘입어 아르헨티나 정부의 차입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마크리 정부는 2018년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며, 2018년 1월에 5년, 10년, 30년 만기 외채 90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7.10)	6등급 (2016.10)
Moody's	B2 (2017.11)	B3 (2016. 4)
Fitch	B (2017.11)	B (2016.10)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62년 2월 15일 (북한과는 1973년 6월 수교 후, 1977년 6월 단교)
- 주요 협정: 문화협정(1970), 투자보장협정(1996), 원자력협력협정(1997), 범죄인 인도조약(2000), 과학기술협력협정(2003), 항공협정(2004), 외교관·관용사증면제각서(2004), 경제무역협력협정(2006), 교육문화협력협정(2007), 형사사법공조조약(2013)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7년 9월말 기준 62건, 186,934천 달러(누적)

□ 교역규모

- 아르헨티나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제8위 수출대상국이자 제6위 수입대상국으로, 교역규모는 14억 달러 수준으로 양국간 경제규모 감안시 크지 않음.
-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영상기기 등이며, 수입품은 식물성유지, 사료, 은, 아연광 등임.

〈표 4〉 한·아르헨티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754	1,047	796	837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영상기기 등
수 입	501	699	833	607	식물성유지, 사료, 은, 아연광 등
교역규모	1,255	1,746	1,629	1,444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7년에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2018년도에도 경제 정상화 정책 등으로 인해 3%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2017년 26.9%에서 2018년에는 10% 후반 정도로 하락할 전망으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나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됨.
- 마크리 정부는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 중인바, 2017년에는 수출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및 국채발행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6.1% 수준으로 전년대비(-5.9%) 다소 확대되었으나, 2018년에는 개혁정책의 정착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수년간 수출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 중반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마크리 정부는 2017년 10월 의회 중간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연금·노동 개혁 등 주요 이슈 논의 과정에서 정치 불안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됨.

- 아르헨티나는 EU 및 주변국들과 관계 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국제신인도·외채상환태도·해외차입능력이 개선되는 등 국제시장의 평가가 점차 향상되고 있는바, 2018년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의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한 해임.

책임조사역 이자호 (☎02-6255-5705)

E-mail: leejaho@koreaexim.go.kr